

강O규, M/23 00000000

하루 전 악화된 코막힘, 코 간지러움 증상으로 내원한 23세 남자환자입니다.

환자는 7년 전 처음으로 시작된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코막힘과 콧물 증상으로 로컬 내과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받은 후, 약을 복용하였으나 당시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 환절기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늦봄/초가을로 표현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술한 것을 보면 7년전 처음 증상이 생겼는데, 언제 병원에서 진단받았는지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진단받은게 몇 년전인지 기술해주세요.
- ⇒ '진단 받았습니다. 당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처방받지 않았다고 하며 약을 처방 받았으나 약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당시 졸렸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무슨 약 먹었냐고 물어보시면 환자분이 실제로 병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나 순응도가 떨어져 증상 잘 조절되지 않아 5년 전 로컬이비인후과에서 비염점막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 '증상 심할때만 병원 방문하여 3-5일씩 약물 처방받았다고 하며, 이후 봄/가을철 증상 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에도 증상 점점 심해져서 5년전 local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점막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코막힘, 눈 가려움, 충혈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고, 봄, 가을 환절기에 심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에 2달 전 로컬 내과 방문하여 levalbuterol 처방받았으나 잘 조절되지 않았고, 일주일 전에는 축구하는 도중 숨쉬기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로컬 내과에서 큰 병원 권유 받아 충북대 병원 내원하였습니다.

- ⇒ '수술 이후 증상 호전되었다고 하며, 초가을에만 가끔씩 콧물 증상 있어 별다른 치료 받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 ⇒ 올해 초라고 표현하지 말고.. 1월부터 그랬는지, 봄 들어서서 그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그리고 눈 관련 증상은 이전에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증상이라는 것을 appeal하세요.
- ⇒ '올해 2월부터 콧물, 코막힘 증상 다시 발생하였고, 4월에 심할때는 눈 가려움, 충혈 증상도 같이 생겼습니다. 이후 여름에 잠깐 덜하다가 다시 8월말부터는 다시 증상 심해졌다고 합니다.

- ⇒ levalbuterol이 뭔가요? 이게 ventolin을 말하는 거면 앞에 호흡곤란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빼고.. '평소 호흡곤란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1주일 전 친구들과 축구하는 도중 숨쉬기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해는데, 운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30분 정도 호흡곤란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 ⇒ '이에 다시 심해진 비염 증상 및 운동 중 호흡곤란에 대한 평가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 ⇒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위의 chief complain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의 chief complaint를 같이 고쳐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복용중인 약물은 없었습니다. 직업은 학생이고, 술은 하지 않고, 흡연은 1갑년 (2년간 0.5팩/day) 이었습니다.

- ⇒ 이 부분 앞에 환자의 과거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알러지 관련 동반 질환 여부를 말해줘야 하고 비염, 천식 제외.. 근데 소아천식 유무는 명시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쌉쌉거려서 입원한 적은 없었고..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이력도 없다고 합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를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 음식물 먹고 두드러기가 생긴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질환을 진단받거나 꾸준히 복용하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라고 표현해주세요.

가족 중 아버지가 알레르기비염을 진단 받고 20년 전 비염점막절제술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 ⇒ 시간이 되면 비염점막절제술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원 당시 신체검사상 쌉쌉거림 없었고, 코에서 끈적한 분비물과 창백하고 부은 코 점막이 관찰되었습니다. 목 안에는 조약돌 모양의 융기된 병변이 보였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 ⇒ '쌉쌉거림은 없었고, crackles(한글로 표현하세요)도 없었습니다.'
- ⇒ 김미경 교수님이 이전 실습조한테 실제로 창백했냐고 물어보신적이 있어요. 본인은 창백한 코를 본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표현을 다음과 같이 바꾸세요. '코안쪽을 들여다 봤을 때 누런 코는 아니지만 약간 찌득찌득해보이는 하얀색 코가 점막에 붙어 있었고, 왼쪽코 안쪽이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 좁았습니다.' (김미경 교수님이 너가 들여다봤냐고 물어보면, 제가 기계로 들여다보는 걸 뒤에서 같이 봤다고 이야기하세요.)

PNS 엑스레이에서는 별다른 이상소견 없었습니다. 내원일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FEV1 3.28L (70%)였고,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환자는 가슴이 답답한게 갑자기 호전된 것 같다고 하였으며 FEV1은 3.46L (0.18L, 5.4% 상승)였습니다. 피부반응검사에서는 집먼지진드기와 속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 ⇒ 순서를 폐기능 검사 먼저 이야기하고, 피부반응 검사, 다음 PNS 순으로 이야기하세요.

⇒ PNS 소견을 언급할 때 '별다른 이상소견 없다고' 표현하면 안되요. '양쪽 maxillary sinus에 air-fluid level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하세요.

#### 상기환자를 정리해보면

환자는 7년 전부터 환절기에 나타나는 콧물, 코막힘 증상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이고, 5년 전 코점막제거술 시행 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올해부터 다시 코막힘, 눈 가려움, 충혈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폐기능검사에서 기도 가역성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운동 시 호흡곤란의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천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 정리하는 것은 impression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상기 환자는 봄/가을 악화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결막염 환자이며,
- ⇒ 최근 비염증상 악화시 동반된 운동시 호흡곤란 및 Chest X-ray가 정상임에도 폐기능이 70%로 약간 낮았던 점 그리고 기관지확장제 사용후 가슴 답답한 증상이 호전되었고 FEV1이 0.18L 호전되었음을 고려할 때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구 스테로이드인 solondo 5mg 3알씩 하루 2번씩 5일동안 복용하도록 교육하였고,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인 omnaris를 하루에 1번, 양쪽코에 2회씩 뿌리도록 교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주 후 외래 방문 시, 폐기능 호전정도를 파악하고 메타콜린에 대한 기관지과민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